주일미사	토요일 : 저녁 7시 *베트남어 미사 저녁 7시(1·3·5주) 주일 : 07시/ 10시 30분(교중) (공소) 학야리 : 홀수달 둘째 주일 14시 교암 : 짝수달 둘째 주일 14시
평일미사	월 : 오전 6시(양형 영성체) 화·목 : 오후 7시/ 수·금 : 오전 10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 토요일 오전 10시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봉성체	매월 첫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시/ 수요일 저녁

간성성당 GANSEONG CATHOLIC CHURCH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71-6
우편번호 : 24729
https://naver.me/FoHi3guG

주임 신부 : 원용훈(스테파노)
수 녀 원 : 이 수산나
장 마리욥
사목 회장 : 최성인(아오스딩)
(겸 연령회장) 010-6228-8584

사 무 실 : 033-682-9004(F682-8004)
사 제 관 : 033-682-9005
수 녀 원 : 033-682-9006

교중미사 전례봉사	날 짜	해 설	1 독 서	2 독 서	봉 헌
	이번 주일	이화순 로사	라영균 예로니모	남근아 마리아	임경철 스테파노 가정
	다음 주일	이은화 아셀라	탁만수 바오로	한상민 안젤라	김원자 안나, 최경희 안나

찬미 받으소서 '느낌표!'

우리는 겉으로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용기는 없는 상태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런 속도라면 불과 몇 년 이내에 기후 위기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권장해 온 1.5°C 상승을 초과하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명적인 상태에 도달할 위험이 높은 3°C 상승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은 참혹할 것이고 엄청난 비용과 엄중하고 견디기 쉽지 않은 경제적, 사회적 영향들에 직면하여 황급하게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안들을 실행하는 데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늦추면 늦출수록 그 비용은 훨씬 더 부담스러워질 것입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56항]

2025년 「신덕·망덕·애덕을 수양(修養)하는 희망의 순례자」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5,5)

□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전교 주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선교 사명을 깨닫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 오늘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로 교황청 전교회를 위한 2차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 묵주기도 성월

성모님과 함께 가정과 평화와 개인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특별히 얽혀 있는 내 삶의 매듭을 풀어 주시기를 청하며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도록 합시다.

※ 매듭을 푸는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 : 유인물 참조

□ 금주 주요 전례 및 모임 안내

◦ 울뜨레야 : 오늘(주일) 교중 미사 후
◦ **교구 사제 연수 : 21일(화)~24일(금)까지**, 평일 미사 없습니다. 미사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지구장본당(교동성당)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모회, 제대회 : 26일(주일) 교중 미사 후

□ 금주의 좋은 이웃 반모임

◦ 1-2반 : 오늘(주일) 오후 2시 차미영 엘리사벳 가정
◦ 3-3반 : 21일(화) 오후 7시 조항준 가브리엘 가정
◦ 2-1반 : 22일(수) 오후 7시 조옥란 헬레나 가정
◦ 2-3반 : 23일(목) 오후 7시 지정호 다마소 가정

□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합동위령미사 안내

◦ 위령의 날 : 11월 2일(주일)

본당	첫째미사	토요일 저녁 7시/ 주일 오전 7시 미사
	둘째미사	주일 교중미사(10시 연도 후 미사)
학야리묘지	셋째미사	오후 2시(짧은 연도 후 미사)

◦ 미사 지향 봉헌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 성경 완필자 접수

금년 신구약 성경 완필하신 분은 10월 31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중, 무릎을 꿇지 못하는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일까요?

가톨릭 신앙의 중심인 성체성사, 즉 예수님의 현존을 믿기 때문에, 신자들은 특별히 '성체 축성'의 시간이나 '성체 현시' 때 무릎을 꿇습니다. 이는 주님의 현존 앞에 인간의 믿음과 경외심을 가장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기에 가장 전통적이고 권장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어서서' 성체께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일어서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미사 중 가장 거룩한 순간에, 성체 앞에 편히 앉아있는 태만한 마음은 아니었는지 되돌아 볼 일입니다.

□ 사제관 창호 교체 공사 24일(금)부터

□ 성모회 젓갈(육젓, 추젓, 액젓) 판매 중

□ 교중미사 후 차나눔 이번 주 구역회 / 다음 주 꾸리아

□ 본당청소 25일(토) 4구역 / 11월 1일(토) 1구역

□ 지난주 정성 *교무금/후원계좌 : 신협 131-021-390754

*미사예물계좌 : 신협 131-021-390778

주일헌금	1,462,000원	교무금	670,000원
교구후원금	116,000원	본당미래기금	279,000원
특별헌금	790,000원		
감사헌금	이경자 마리아 20만, 이재호 요한 10만, 김복순 요안나 10만		

※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를 하느님은 사랑하십니다.(2코린 9,7)

※ 교적상 신자수 : 810명 **주일미사 참례율 : 23.45%**

토19시	주일7시	주일교중	교암공소	월	화	수	목	금	토
52	15	97	26	15	27	19	27	24	22
190									

※ 미사 참례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